

구강보건,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여(1)

WHO 자료번역문

선진국에서의 구강건강의 눈부신 발전은 금세기 보건분야의 중요한 영공사례에 속한다.

* 모든 아이들이 충치로 인해 치통을 경험하고 대부분의 30대 성인은 거의 모든 치아가 충치에 이환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치아가 모두 없는 상황으로부터

* 구강질환을 전혀 갖지 않는 아이들과 30세 이후에도 충치를 갖지 않는 일부 성인, 심지어는 평생토록 자연치를 보유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변천되었다.

이제는 동통을 주로 다루었던 치료 중심에서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예방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증치료와 충전 등의 처리가 계속 시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 보고에 의하면 40세의 연령층에서 30개의 치면이 충치에 이환되어 있고, 65세 이상의 40% 정도에서 전 치아가 상실되어 있었으며, 더우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 즉 장애자나 빈민, 소수민족 등에서는 훨씬 많은 구강 질환이 보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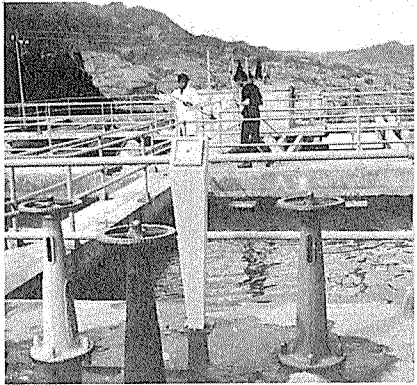


선진국의 사정은 어떠한가?

상수도의 불소화는 충치 이환률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소금과 우유의 불소화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 현재 보편화되어 있는 불소 치약의 평생 사용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구강청결은 신체청결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지고 있고, 우리들은 신선하고 건강한 구강상태와 호흡시의 향기로움을 원하고 있다.

불소치약의 사용과 규칙적인 구강위생 습관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영화나 잡지를 통한 산업체의 광고에 의해 전파되고 있는 생활습관화에 속한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산업체는 치과 의사들이 강조해야 할 구강건강의 예방적 중요성을 전해주는 매우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성공담들은 개발도상국의 상황과 어떻게 결부되는가?

상수도의
불소화는
충치 이환률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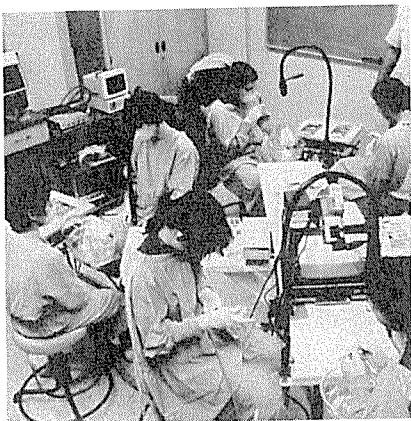
우리들은 이러한 나라에서 매우 다양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다행히도 많은 나라에서는 일생동안 5~6개 정도의 치아만이 충치에 이환되고 심지어는 노인층에서도 자신의 치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구강건강이 매우 좋은 상태로 유지되나, 몇몇 나라에서는 대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식생활 습관이 빠르게 변화되어 구강질환이 증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치아의 상실과 통증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충치와 치은질환과 같은 평범한 구강문제 외에도 생명과 행복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강질환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 구강암은 인도사람들에게서 호발하는 암종 중의 하나로서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치사율이 높다.

* 괴저성 파괴 병소인 수암은 주로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의 여러나라에서 발생되는데, 영양실조와 질병상태에 있는 수천명의 유아들의 안면과 악골을 파괴시킨다.

* AIDS의 출현으로 구강내의 곰팡이 감염이나 여러 형태의 구강궤양, 치료가 불가능한 구강암이 다수 관찰되게 되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구강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농촌이나 가난한 도시인들은 기본적인 응급처치와 통증에 대한 치료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치과는 고통이고 경제적 부담이다.



**AIDS의
출현으로
구강 내의
곰팡이 감염이나
여러 형태의
구강궤양,
치료가 불가능한
구강암이
다수
관찰되고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구강진료에 대한 요구가 매우 증가되어 치과 대학을 세움으로써 이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 줄 자본이나 교육요원이 부족하고 더우기 자본이 있더라도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여져야 하는 데다가 치과장비가 전기나 가압된 맑은 물로 작동되는 것이므로 개발도상국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다수의 대중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강력한 예방대책 없이 치료에 초점을 두는 것은 선진국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결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구강진료 가능성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가난한 지역에까지도 건강을 가져다 주고 구강진료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예방방안, 새로운 훈련기법, 새로운 디자인의 장비, 기본적인 기구세트, 새로운 현대적 재료가 계속 결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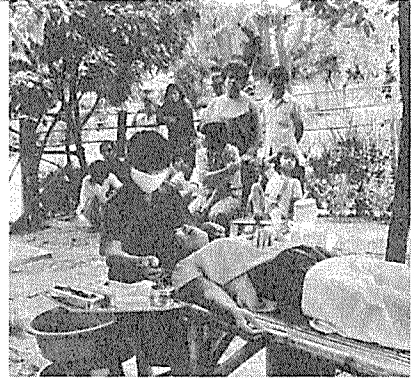
WHO의 역할

WHO 계획은 6개 부분에 걸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1. 필수적인 예방활동이 유지되도록 보장하여 인류가 범발성 질환인 충치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하고,
2. 기초적이며 건강증진적이며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구강진료의 새로운 기술을 일반 대중인과 행정관리, 구강진료요원들에

모든 지역사회는
일생동안
성인의 치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초적인
구강진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게 소개하며,
3. 포스터, 비디오,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용 자료, 소책자 및 이러한 변화들을 뒷받침하는 안내서 등과 같은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4. 기초적인 재료와 도구, 약품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된 기술을 개발하며,
5. 지역사회를 도와 수암과 같은 파괴성 질환으로 불구가 된 어린이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사회를 돕기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동시에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양관리와 기본적인 아동관리에 기초를 둔 캠페인을 주도하고,
6. 구강보건진료요원의 교육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다.



금세기말에 구강건강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하는가?

정부와 지역사회는 구강질환에 대해 예방대책을 발전시키고 유지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지역사회는 이런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강보건진료요원 교육에서의 변화로 인해 치과의사들은 전신 건강과 구강건강 유지의 한 방편으로서 생활습관과 위생을 지도 하면서 구강내과의사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들은 구강문제 전반에 걸쳐 전문적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㉔

• 4월은 보건의 달

건강임고 후회말고

건강일 때 잘지키자